



꿈속강산



7

2026년

루계 제443호 월간

표지: 조국방문의 나날에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성원들이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사진 김영호

2 || 과학기술중시는 부흥의 지름길

문답

6 || 더 높은 과학기술성파로

일화

7 || 위민헌신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8 || 쏘베트나, 인민혁명정부냐?

10 || 언제나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계시며

수기

12 || 영원한 축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린 선물

13 || 은슬잔일식

14 || 계승되는 전승세대의 정신과 기풍

15 || 전승사에 새겨진 수자와 사실

16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6차 전체대회 진행

18 || 바쁜 사람들

조국방문

20 || 묘향산에서 보낸 하루밤, 이틀낮



수기
24 || 금지

인상기
25 || 붉은기를 보며
25 || 《우리는 조선사람》,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애국의 낮은 대를 이어
26 || 아버지의 줄지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고향소식
28 || 늘어나는 새 거리, 그 거리의 주인들

32 || 대규모온실남새생산기지 신의주온실종합농장

38 || 주체철생산성과 확대

42 || 어린이지능계발에 도움을

44 || 하나의 일념을 안고

46 ||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탁구소조

47 || 관심을 모으는 지능형건물조종체계

48 || 선진기술로 품질을 담보하여

50 || 보양음식봉사로 인기를

52 || 남매우표수집가

54 || 서예의 어제와 오늘

전설
56 || 등산놀이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과학기술중시는 부흥의 지름길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어디서나 지식과 기술로 경쟁하고 발전하며 과학기술중시, 과학기술우선으로 부흥과 전진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것이 전사회적인 흐름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3월초까지 3대혁명 전시관에서 열리었던 인민경제 부문별 과학기술 성과전시회-2025와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진행된 제39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을 놓고보아도 과학기술의 부단한 증대로 전면적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다는것이 눈에 띄게 알리고있다.

과학기술중시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고 국가경제의 자립적토대와 잠재력강화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룩되었으며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과 선진적인 보건시설, 종합봉사소를 비롯하여 지역발전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수 있는 새 령역들이 개척되고있다.

농업부문의 알곡생산구조가 바뀌고 과학농사,

기계농사가 농업생산에서 실지 변혁을 이루어내는 구성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전민학습체계와 과학기술보급체계가 활발히 운영되어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발전을 담보하는 기술형의 인간, 지식형의 근로자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자 나라의 자립적발전능력의 증대이며 사회주의의 전진속도이다.

최근년간에 일어난 이 모든 성과들은 과학기술발전에 언제나 큰 힘을 넣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만능의 해결책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과학기술중시이고 과학기술발전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과학의 힘에 의거할 때 막혔던 길도 열리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수 있으며 과학기술에서 진보와 혁신을 이룩할 때 자립자강의 초석을 반석같이 다지고 금후투쟁을 더 확실한 전진과 비약의 결실들로 이어놓을수 있다고 하시며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제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인민경제 부문별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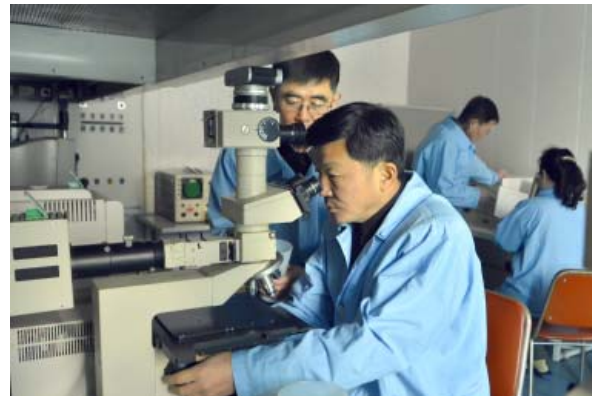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찌기 불후의 고전적로작 《과학기술증시시상을 구현하여 생산과 건설을 과학화하여야 한다》를 비롯하여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과학기술을 모든 부문의 발전을 떠밀어나가는 기본요인으로 규정하시고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모든 부문이 힘차게 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대책을 세워주시고 모든것이 부족할 때에도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투자와 보장사업을 앞세워주시었으며 2016년 1월 과학기술전당의 준공으로 새해의 문을 여시고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려는 드림없는 의지를 표명하신 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당 제8차대회에서도 과학기술의 실제적인 발전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확고히 담보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을 비롯한 중요당회의들에서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키워야 한다고 이르기도 하시



였다.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난국을 헤쳐나가는것을 일관하게 중시해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2018년 1월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서는 우리의 과학자들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면서 오늘 국가과학원 과학전시관을 돌아보면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국가과학원 과학전시관은 자력자강의 보물고이며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일군들도 참고하도록 방대한 선진기술자료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과학기술성과가 이룩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제일 기뻐하시고 몸소 현지에서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어느 부문, 어느 단위의 사업을 지도하시여도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두해전 8월 어느날 지방공업공장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 중시하신 문제의 하나가 과학기술보급거점건설이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과학기술보급거점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한 실천적인 방도로서 시, 군마다 《과학기술보급중심》을 내오고 여러 분야의 필요한 지식들을 보급하여야 한다고, 이것은 과학기술로 발전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당의 정책에도 부합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었다.

2024년 8월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지도하시던 그날에도 과학기술문화보급거점도 통이 크게 훌륭하게 완공하여 지방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기술과 지식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자립경제의 토대를 가일층 강화할수

있었으며 부흥의 지름길을 열어나갈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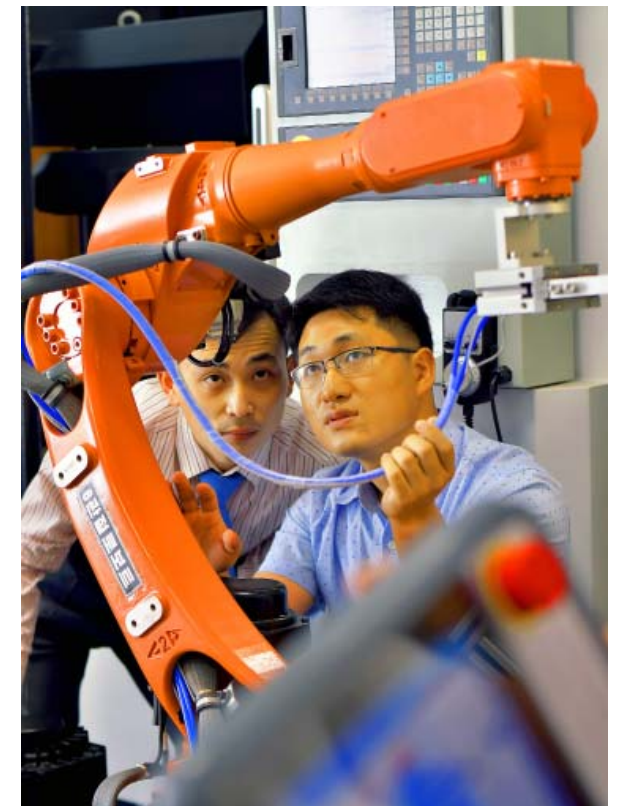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 해인 지난해에 2024년 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세멘트를 더 생산한 상원의 로동계급과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 과학농사의 길을 열어놓은 농업근로자들의 모습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하기에 해외동포들은 조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변혁의 결과들을 말이나 리상이 아닌 현실로 직접 마주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기술의 힘으로 만년을 뚫고헤치며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개척기를 일대 고조기로 힘차게 이어나가고있다.

글 엄향심

사진 김평, 리석, 원동철, 류광혁



위민원진의 나날에

더 높은 과학기술성파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 조성민과 본사기자와의 문답 -

기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새 5개년계획기간 과학기술사업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조직하고 진행해나가고있는가?

국장: 우리는 의의있고 완벽한 실천적성파들로써 새 전망계획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해나가고있다.

국가경제의 자립화, 현대화수준을 제고하고 생산의 질적인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에서는 현행생산을 다그치면서련관단위의 과학연구력량과 지혜를 합쳐 우리 식의 철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고 강질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갈탄으로부터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현실적의의가 큰 새 기술들을 개발하고 생산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에 힘을 넣고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풍력파태양에너르기에 의한 전력생산과 그 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화되고있

으며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갱내작업의 기계화, 정보화를 실현하고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기자: 선진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서 어떤 진전이 이룩되고있는가?

국장: 우리는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현실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과학기술의 선도자적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그라펜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여러 부문에 리용하기 위한 문제, 자료구축 및 검색공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보건부문에서 줄기세포치료기술을 개발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들을 계획성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이밖에도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기자: 새로운 과학기술성파들을 일반화하고 적극 도입하기 위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국장: 이를 위해 우리는 해마다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을 비롯한 여러 전시회 등을 조직진



행하고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된 제39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는 590여개의 우수한 단위들이 참가하였다. 이 기간에 진행된 부문별과학기술토론회와 발표회 등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서로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교환, 공유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과학연구부문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국가적의의가 큰 수십건의 과학기술성과와 우수한 기술제품들이 개발되어 현실에서 은을 내고있다.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더 높은 과학기술성파로 국가번영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사업을 치밀하게 해나가겠다.

* * *

통속적인 말씀에 답으신 뜻

2015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찬바람이 불어치는 험한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찾으시였다.

현지에 게시해놓은 조감도를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전당형성안이 잘되었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어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은 과학자, 기술자들뿐 아니라 전체 인민이 마음껏 배울수 있는 배움의 전당, 선진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자면 자동차들이 쉬임없이 연유공급소에 와서 연유를 공급받고 가는것처럼 사람들이 과학기술전당에 와서 최신과학기술지식을 끊임없이 배워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과학기술전당은 과학기술정보를 끊임없이 류통시키는 보급거점이 되어야지 물이 고여있는 곳처럼 되어서는 안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자동차들이 쉬임없이 연유공급소에 와서 연유를 공급받고 가는것처럼 되어야 한다!

물이 고여있는 곳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의 사명과 역할을 밝혀주시는 뜻깊은 말씀이였다.

늘어난 원격강의실

2016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과학기술보급실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에게 여기 있는 동무들이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들인가고 물으시였다.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된 공장의 종업원들이라는 지배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이 공장에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된 학생들이 많다고 만족해하시였다.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는 그이께 공장일군은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 강의실을 더 늘이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종업원들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울수만 있다면 품이 들더라도 과학기술보급실을 확장하여 강의실을 더 늘여야 한다고 하시며 공장일군들의 결심을 지지해주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종업원들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늘 깊은 관심을 돌려 능력있고 준비된 과학기술인재대렬을 계속 늘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공장을 다녀가신 후 이곳에는 원격강의실이 늘어나게 되였다.

양식장에 들어가보신 사연

어느해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자라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한 실내자라양식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당시 양식장의 온도와 습도가 매우 높았다.

일군들은 온습도가 높아 양식장에 들어가시면 안된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과학자들이 훌륭한 무인먹이운반차와 무인먹이공급차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고 하시며 주저하지 않으시고 양식장으로 들어서시였다. 무인먹이운반차와 무인먹이공급차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고 정말 멋있게 잘 만들었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쏘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전호에서 계속)

무턱대고 배척하는것, 닥치는대로 청산하고 타도하고 매장하는것이 가장 철저한 계급성으로 인정되고 가장 선봉적인 혁명가의 표징으로 평가 될 때였다.

좌경이 얼마나 신성시되었으면 왕청농민들이 한때 파부가 길쌈을 해서 벌어들인 얼마간 변돈을 내놓은것까지 고리대라는 딱지를 붙여 그 채용증을 소각해버리고 본전마저 떼먹었겠는가. 지도자들의 배후조종이 없이는 순박한 농민들이 이런 강짜를 부리지 못한다.

나는 언제인가 왕청에서 리응만중대장이 무장대오에 가입한 경위를 듣고 깜짝 놀란적이 있다.

초기에 무장단에서는 자기 대오에 로동자출신들과 빈고농출신들만 받아들였다. 그런데 리응만이네 집에는 1만평가량 되는 척박한 산전이 있었다. 이 1만평때문에 그는 빈고농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가 무장대오에 받아들라고 여러번 간청하였으나 동무들은 성분이 나쁘다는 리유로 매번 퇴박을 놓았다. 1만평이면 중농이라는것이다.

리응만은 고심끝에 부모들 모르게 밭을 팔아 장만한 돈으로 브로닝권총 한쌍자를 사가지고 가서 무장대오에 넣어달라고 졸랐다. 그때에야 동무들은 그를 무장대오에 받아들였다. 리응만은 유격대원이 되었다고 기뻐하였지만 땅 1만평을 하루밤사이에 잃어버린 그의 가족들은 생존의 길이 막혀 하늘만 쳐다보게 되었다.

좌경을 경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겠다는 나의

결심은 간도땅에 와서 더 굳어졌다. 나는 그때부터 일생동안 좌경과의 투쟁을 하여왔다. 간도 시절의 체험은 해방후 우리가 좌경을 예방하고 관료주의를 청산하는 투쟁에서 큰 도움으로 되었다.

번지르르한 혁명적언사와 초당적인 구호의 뒤에서 좌경은 항상 대중을 우롱하고 억누르고 기만하며 공명과 출세를 꿈꾼다. 그 공명과 출세를 위하여 자기를 최전선에서 돌진하는 땅크나 장갑차로 묘사하는것이 좌경이다. 변장한 반혁명이 좌경의 모습으로 둔갑하는것은 그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 자기 진지에 좌경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좌경적인 쏘베트시책이 빚어낸 후과로 하여 유격근거지에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동요와 혼란이 생기였다. 많은 가정들이 쏘베트시책에 불만을 품고 적구로 떠나가버리였다.

어느날 밤 나는 대원들을 데리고 2중대 정치지도원 최춘국이 있는 셋째섬으로 가다가 유격구를 버리고 솔가도주하는 한 장년의 가족을 만났다. 대낮에 떠나가다가 붙잡히면 반혁명의 딱지를 쓸수 있으니 밤시간을 택한것이다. 식구는 다섯이나 되었는데 짐짝들은 얼마 없고 알몸에 가까운 차림새였다. 그 사람에게는 안해와 아이들 셋이 울망줄망 달려있었다.

50에 가까운 그 장년은 총멘 군인들을 알아보자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유격대지휘관한테 발각되었으니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대에서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추위에 떨고있는 세 아이를 한아이, 한아이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수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유격구를 떠나려고 작정 하셨습니까?》

《여기서는 숨이 막혀 더 살수가 없어서...》

《그럼 어디로 가실 생각이였습니까? 적구에 가면 여기보다 숨이 더 막힐텐데.》

《우리가 왜놈들의 등쌀에 못이겨 유격구에 들어왔는데 그 몹쓸놈들한테야 어찌 다시 밭길질을 하겠습니까. 인적이 없는 깊은 산골에 찾아가서 화전이라도 일구어 연명을 해갈가 합니다. 그러면 마음만이라도 편할게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마흔보다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고 래일의 생계조차 기약할수 없는 그들에게 과연 마음편한 생활이 펼쳐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해토도 되지 않고 풀도 돋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끼니를 댈 차비새가 돼있습니까?》

《있기는 뭣이 있겠습니까. 가서 기력이 진할 때까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저 그런거지요. 이제는 목숨이 붙어있는것도 막 귀찮습니다.》

결에서 그 말을 듣고있던 그 사람의 부인이 문득 어깨를 떨며 흐느끼였다. 그러자 내 품에 안겼던 세 아이도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였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입술로 삼키면서 어둠속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이렇게 하나둘씩 다 떠나고나면 구경은 누구를 믿고 혁명을 한단 말인

가? 우리 혁명이 어찌면 이렇게도 처량한 막바지에 다달았을가? 쏘베트의 무모한 시책이 빚어낸 후과는 이처럼 파국적인것이였다.

《이제 얼마간 있으면 세월도 바로잡히게 될터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시국이 평정될 날을 기다려봅시다.》

나는 대원들을 시켜 로상에서 만난 그 가족을 집에 데려다주게 하고 2중대 병실에 가서 자려던 예정계획을 변경시켜 서대파에 있는 최자익로인을 찾아갔다. 이왕 가슴아픈 일을 당한바에는 유격구의 민심이 어떤지 더 속속들이 캐고들려는것이였다. 최자익은 왕청별동대의 대원으로 유격대생활을 시작한 후 중대장을 거쳐 독립려단 련대장으로까지 승진되어 활동하다가 전사한 최인준의 아버지인데 내가 셋째섬에 올 때마다 꼭꼭 잊지 않고 만나곤 하는 로인이다.

이 로인이 서일이 이끌던 북로군정서에서 서기까지 하며 따라다닐 정도로 식견이 높은데다가 성미가 활달하고 솔직하여 만나기만 하면 참고가 될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수 있었다.

《로인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의 인사에 최자익은 《사니까 사는구나 하지요.》 하는 말로 통명스럽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 통명스러운 어조가 유격구의 민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말을 걸었다.

《로인님, 유격구생활이 그렇게도 힘듭니까?》 최자익은 그런 질문을 받자 어성을 높여 벌컥 화를 내였다.

(다음호에 계속)

언제나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계시며

1년 365일 어느날이나 다 그러하지만 해마다 7월이면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뜨겁게 솟구치는 강렬한 감정이 있다.

세월의 굵은비, 찬눈을 다 맞으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한 헌신과 로고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이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과 정을 나누시고 정사도 함께 의논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갈피에는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이어가신 현지도의 자욱도 있다.

1947년 6월 7일 그이께서는 모내기를 하시기 위해 미림벌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분여받은 땅에 모두 즐겁게 모를 내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모춤을 쥐시며 당장 씨레친 논판으로 들어가려고 하시였다. 이때 수염발이 허연 로인이 황급히 그이께 달려가 나라의 임금님이 모춤을 쥐시면 안된다고, 우리 농군들이 모뭇는걸 보아달라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나라의 임금님 아니라 인민을 위해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오늘은 할아버지가 저기에 앉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모뭇는 모습을 구경하라고 이르시였다.

이윽고 논판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모춤을 물에 깨끗이 씻고 뿌리를 가뜰하게 맞추신 다음 논판에 첫모를 뭇으시였다.

이렇게 해방조국의 첫 기슭에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근 50년세월 그이께서는 농장벌을 찾고 또 찾으시였다.

조선서해의 연백벌, 재령나무리벌로부터 감자꽃바다 실례이는 백두대지며 두메산골의 농촌마을에 이르기까지 농업근로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가시였다.

잘사는 농장은 살림이 늘어가는 모습이 기쁘시여 자주 찾으시고 형편이 어려운 농장은 늘 마음에 걸리시여 가셨던 길 또 가시며 마음쓰신 그이이시였다.

농사에서는 농민들이 선생이라고 하시며 늘 그들에게서 배운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 농업근로자들을 만나 무릎을

마주하시고 소박한 말도 귀중히 들어주신 나날과 더불어 토지개혁법령이 발표되었고 농업협동화 방침,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그리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도 나왔다.

그이의 현지도의 자욱마다에 새겨진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많고많다.

1960년 6월 어느날 그이께서는 간석지개간정형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온천군에 대한 현지도를 진행하시였다.

간석지로 들어가는 길어구에 차를 세우시고 내리신 그이께서는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헤쳐 간석지가 시작되는 뚝에 올라서시였다.

끝없이 펼쳐진 간석지벌에서 좀처럼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좀더 나가 보자고 하시였다.

일군들이 이 앞으로는 나가실수 없다고, 이제 더는 길이 없다고 아뢰이며 막아나섰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인데 무엇을 가리겠는가, 길이 없으면 우리가 이 간석지에 첫길을 내자고 하시며 감탕판으로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얼마후 진펄 한가운데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이 벌을 개간하면 참 좋겠다고, 전망이 아주 풍부하다고 하시였다.

우리 인민을 잘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는것, 이것이 한평생 농사일로 마음쓰신 그이의 념원이였다. 그래서 그이께서는 현지도의 자욱도 농업부문에 제일 많이 남기시였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들가운데 가보지 않은 곳이 별로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농촌경리부문을 지도하기 위하여 농장들에 찾아다니는것만 하여도 수십만리는 될것이며 농장원들을 만나 담화한것만 하여도 수만명이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그이께서는 80고령에도 어느 하루 편히 쉬신적이 없으시였다.

1993년 8월에도 그이께서는 농사일이 걱정되시여 황해남도를 찾으시였다. 먼길을 달리신 피로를 푸실 사이도 없이 이른새벽부터 정오가 될무렵까지 여러 군의 5개 농장을 현지도하신 그이께서는 점심시간에는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정무원(당시)과 황해남도 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가지시였다.

나라의 농업생산을 위해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던 나날 그이께서 하신 교시가 오늘도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 알곡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일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듯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한평생 로고를 바치시였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하여 끝없이 헌신하신 그이의 자애로운 그 모습을 우리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못잊는다.

글 변진혁



수 기

영원한 축복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일신

나는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를 《꼬마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호칭을 들을 때면 꿈만같은 행복속에 보낸 못잊을 그날이 떠오르곤 합니다.
1989년 1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는 설맞이모임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축복해주시기 위하여 나오시였습니다.
꿈속에서도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이 있는 방에 들어서시였습니다. 나는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아 슬그머니 손등을 꼬집어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앞으로 가까이 오시자 나는 너무도 자애로우신 그이 모습에 이미 준비하였던 시를 감감 잊고 꿈만 같은 심정을 즉흥시에 담았습니다.

꿈인가 생각하니 꿈은 아니고
정말인가 생각하니 꿈만 같아요
두손 짚아 기다리던 설명절날에
...

내가 받은 행복이 너무도 커서
눈 뜨고도 꿈 깰가봐 안타까와요

시를 읊는 나를 사랑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두손을 꼭 잡아주시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락원에서만 이 학생과 같은 재능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나올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또다시 시를 읊는 나를 넓은 품에 꼭 안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신의 오른팔을 꼭 잡은 나를 데리고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들과 서예도 보아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 그림을 보실 때마다 나는 아버지앞에 나신듯 그에 맞는 시를 계속 읊어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를 대견하게 바라보

시며 이 학생의 머리에는 시가 짝 들어왔다고, 시가 몸에 폭 뻗었갈다고 치하해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재능있는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과 쓴 글을 가지고가서 보시겠다고, 이 어린이들과 하루종일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모두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습니다. 행복한 순간은 빨리도 흘러 어느덧 설맞이 공연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저희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그이께서는 나와 우리 꼬마들의 작은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며 공부를 잘하라고 거듭 당부하시고서야 관람석으로 나가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두해가 지난 1991년 설맞이모임때 나는 또다시 영광을 받아안았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날 공연에 출연한 나를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저 학생을 내가 잘 안다고 하시며 내가 해마다 저 애들을 보곤 하는데 점점 잘한다고 과분하게 치하해주시었다고 합니다.

이날 그이께서는 공연이 끝난 후 나를 부르시여 영광의 기념사진을 또다시 찍어주시었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신의주백사인민학교(당시)에서 공부하고있던 나를 평양에 있는 금성제1고등중학교(당시)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시였으며 부모와 떨어져 함숙에서 생활한다는것을 아시였을 때에는 지방에서 살던 나의 온 가족을 평양으로 불러주시였습니다.

그날 나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이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갔습니다.

그이의 축복이 있어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재능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었으며 일군으로, 작가로 성장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나의 마음속에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은 한없이 자애로우신 모습으로 영생하십니다.

은술잔일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1982년 4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도교도 나까스기지부 에끼마에분회 분회장 황종수가 드린 선물



계승되는 전승세대의 정신과 기풍

이 땅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른 때로부터 73번째의 년륜이 새겨지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가렬한 전화의 격전장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에서 전승세대가 발휘한 영웅정신과 기풍은 오늘도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떠밀어주는 진함없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간의 전쟁(1950년-1953년)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들과의 대결로서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공화국에 있어 실로 힘겨운 싸움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방위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당대의 엄청난 도전을 과감히 맞받아 력사에 없는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인민군전사들은 조국의 한치땅을 지켜 서슴없이 가슴으로 적화점을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었고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용감히 싸웠다. 후방의 인민들은 석수가 떨어지는 강도속에서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면서 전시생산을 중단하지 않았고 적들의 맹폭격속에서도 식량증산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후손들의 삶을 위하여 빛나는 공훈을 세운 그들이였지만 언제 한번 피흘린 대가를 바라며 편안한 생활을 찾지 않았다.

먼저 간 전우들의 부탁대로, 그들의 몫까지 열매, 스무배로 일을 더 많이 하여 사랑하는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것을 그들은 자기의 응당한 도리로, 의리로, 본분으로 간주하였다.

하기에 그들은 전후에도 복구건설의 막중한 일감들을 또다시 어깨우에 걸머지고 조국을 위한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갔다.

재더미만 남았던 빈터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우며 그들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고상한 집단주의기풍,

공산주의인간관계를 창조하였다.

전승세대의 삶은 그 어떤 곤난도 굴함없이 맞받아 헤치며 위훈으로 조국을 빛내인 고결한 애국주의를 자양분으로 하고있다.

전승세대라는 고귀한 부름은 오늘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자기자신보다 조국을 위한 일밖에 몰랐던 참된 애국자의 상징으로 깊이 새겨져있다. 전승세대의 정신과 기풍을 계승하여 오늘 전체 인민은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령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은 국가방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주요부문들에서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고상한 정치도덕적품모로 자기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쳐가고있다.

2024년 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세멘트를 더 생산한 기세로 매일 계획보다 1. 2배의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자체의 힘으로 여러개의 발전소를 일떠세운 강원도인민들, 당중앙의 수도건설구상을 완벽한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살림집건설자들, 석탄증산성파로 자립경제를 굳건히 떠받들고 있는 탄부들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 건설장들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한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이 해마다 인민군대에 탄원하고 있으며 수많은 청년들과 가정부인들이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적극 진출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애국자들의 대오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가장 큰 국난에 직면하여 가장 큰 용기를 발휘하며 가장 큰 승리와 영예를 안아온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의 정신과 기풍을 굳건히 계승하여 두렵없이, 멈춤없이, 과감히 용진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글 김리정

전승사에 새겨진 수자와 사실

미제가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입은 손실은 4년동안의 레펵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거의 2. 3배에 달하였다.

적살상 및 포로 1 567 128명
그중 미제침략군 405 498명
한국피뢰군 1 130 965명
추종국가군대 30 665명

- 적전투기술기재
- 비행기 12 224대
 - 그중 로획 11대, 격추 5 729대, 격상 6 484대
 - 탱크 3 064대
 - 그중 로획 374대, 격파 2 690대
 - 장갑차 191대
 - 그중 로획 146대, 격파 45대
 - 자동차 13 350대
 - 그중 로획 9 239대, 격파 4 111대
 - 함선 및 선박 564척
 - 그중 함선 격침 164척, 격파 93척
 - 선박 로획 12척, 격침 163척, 격파 132척
 - 각종 포 7 695문
 - 그중 로획 6 321문, 격파 1 374문
 - 각종 저격무기로획 925 152정
 - 화염방사기로획 117정
 - 각종 통신기계로획 5 788대
 - 각종 포탄로획 489 260발
 - 각종 탄환로획 21 245 071발
 - 각종 수류탄로획 224 123개
 - 각종 지뢰로획 14 449개
 - 각종 기중기파괴 5대
 -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6차 전체대회 진행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6차 전체대회가 5월 23일과 2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 배진구, 조일연, 서충언, 강추련 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상임위원들, 재일본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총련본부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일꾼들, 중앙감사위원들, 총련의 각급 기관, 단체, 사업체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6차 전체대회에 보낸 축전을 남승우부의장이 낭독하였다.

대회에서는 자격심사보고가 있는 다음 대회의안으로 《총련의 제25기 사업총화와 제26기 과업에 대하여》, 《총련강령 및 규약의 개정에 대하여》, 《제25기 재정결산 및 제26기 예산안에 대하여》, 《총련중앙기관 역원선거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박구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이 총련 제26차 전체대회 첫째 의안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총화기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5.28서한을 받들고 본부의 조직강력파와 실천력을 부단히 높이며 지부중시, 분회중시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 기층조직들을 생기발랄한 산 조직으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강령적서한에서 제시된 4대과업관철에서 이룩한 사업성과와 경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총련탄압소동과 민족교육차별책동, 재일동포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악랄하게 감행된 엄혹한 상황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련령도구상을 항상 새기고 각계각층 동포들의 무궁한 힘을 총발동하여 시련과 난관을 일심단결과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과감히 물리치면서 총련 각급 조직과 단체, 사업체들을 일심단결의 성새,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진데 대하여 그들은 긍지높이 토론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해주신 총련의 새 투쟁기에 결성세대들의 애국정신을 굳건히 이어나가며 3대주력사업을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존엄과 동포사회의 존속,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전도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불퇴전의

각오로 본 대회결정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대회에서는 조국의 각 기관, 단체들과 일꾼들 그리고 해외동포단체들, 일본의 각 단체 및 개별인사들, 해외의 친선단체들이 보내온 축전들과 축하인사록화편집물이 소개되었다.

재일조선청소년학생대표들이 대회장에 입장하여 총련 제26차 전체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사업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안인 총련중앙위원회 보고를 대회결정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둘째 의안인 총련강령 및 규약개정심의위원회 보고, 셋째 의안인 재정결산 및 예산안심의위원회 보고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허종만동지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선거하였다.

또한 제1부의장, 부의장, 사무총국장, 총련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대회에서는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사회주의조국은 천하제일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며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주체위업과 더불어 총련애국위업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더욱 깊이 새기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총련결성 80돐을 향한 새 투쟁기의 리정표를 세운 제26차 전체대회결정을 무조건 집행하여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며 총련을 동포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동포제일주의조직으로 꾸리는데서 확실한 진전을 가져오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삼가 드릴 충성의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총련중앙위원회 제26기 제1차회의에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련중앙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선출하였다.

대회기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6차 전체대회를 축하하는 공연과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대회는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사회주의조국은 천하제일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며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주체위업과 더불어 총련애국위업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더욱 깊이 새기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총련결성 80돐을 향한 새 투쟁기의 리정표를 세운 제26차 전체대회결정을 무조건 집행하여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며 총련을 동포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동포제일주의조직으로 꾸리는데서 확실한 진전을 가져오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삼가 드릴 충성의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총련중앙위원회 제26기 제1차회의에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련중앙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선출하였다.

대회기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6차 전체대회를 축하하는 공연과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대회는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사회주의조국은 천하제일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며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주체위업과 더불어 총련애국위업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더욱 깊이 새기었다.

글 및 사진 조선중앙통신



《청송》잡지편집위원회 합평회를 진행한다.

그들은 지역상 먼곳에 있거나 운신하지 못하는 동포들을 찾아가 고향소식을 남먼저 알려주는가 하면 조국에서 출판되는 《금수강산》잡지에 실린 친척들의 안부도 전해주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청송》잡지에 조국의 현실과 동포들의 고향방문소식을 비롯

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그리고 인기있는 소설들, 새로운 노래들도 다양하게 편집하여 인기도를 높이고있다. 하기에 동포들 누구나 이들의 노력이 깃든 《청송》잡지를 애독하고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성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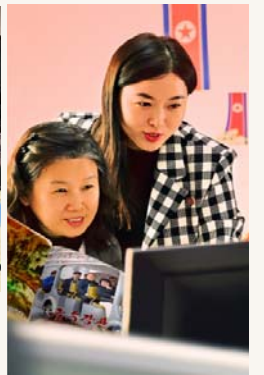
행사준비사업에 여념이 없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 국장 권현



《청송》잡지는 동포들이 애독하고 있다.



《금수강산》잡지에 실린 조국소식들을 동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바쁜 사람들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에서 -



높은 편집수준으로

사진에서 보는 동포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 일군들이다.

무척 바쁜 모습들이다. 실지 동포들에게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구들인가고 물으면 모두가 선전국의 일군들이라고 말할것이다. 오랜 기간 료녕지구협회 회장으로 사업한 선전국 국장 권현동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전국일군들은 언제나 동포들에게 조국의 새 소식들을 신속정확히 알려주고있다.



새로 나온 조국의 노래들을 보급하고 동포조직들에서 진행되는 예술공연도 방조하고있다.

정치용어해설

침입식사업방법

침입식사업방법은 자기 단위 사업을 추켜세우는데서 실지 절실하고 하나의 성과로 많은 리득을 볼수 있는 대상을 중심고리로 선정하고 거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는 방법이다.

사업을 벌려나가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과업들이련이어 제기되며 그것들은 호상 밀접한 련관속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과업들가운데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면 다른 과업들을 수행하

는데서도 결정적영향을 미치는것이 있으며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 빠른 기간안에 풀어나가는것이 침입식사업방법이다.

침입식사업방법은 사업에서 력량의 분산성을 막고 집중성을 보장하며 같은 품을 들이고도 최대한의 실리를 얻기 위한 방법이다.

* * *

묘향산에서 보낸 하루밤, 이틀낮



온갖 만물이 소생하는 봄계절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를 맞으며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중조선인청년협회축하단 성원들이 우리 나라 명산의 하나인 묘향산을 찾았다.

축하단성원들은 예로부터 산세가 기묘하고 수려하며 경치가 아름다운 묘향산에로의 등산길에 오르기 전에 먼저 국제친선전람관으로 향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린 한점한점의 선물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명옥동포는 《많은 선물들이 그러하지만 중국의 유명한 작가이며 사회활동가인 광말약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선물을 보니 입을 딱 벌릴 정도였습니다. 사실 말로만 들었지 중국에서는 광말약이 쓴 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선물이나 할것없이 모든것이 다 훌륭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전람관의 로대에서 축하단성원들은 국제친선전람관이야말로

로 세계가 모이는 집이라고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어 축하단성원들은 등산길에 올랐다.

묘향산의 경치에 반해 한해에도 몇번이나 이곳에 온다는 김수련동포는 눈감고도 어느 골짜기에 무슨 폭포가 있는지 알아





오락회의 분위기를 돋구었다.
 향산호텔에서 생일을 맞은 리
 봄순부회장은 조국방문의 나날
 은 하루하루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누구나 추억할 묘향산에서의
 하루밤, 이틀낮이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맛출수 있다고 하였는가 하면
 처음 온 김혜경, 오숙경동포들은
 누가 먼저 오르는가 보자고
 하면서 걸음을 재촉하였다.

김영미, 김명옥, 양원, 량리
 향, 조수영, 리봄순동포들은 등
 산로정의 곳곳에서 사진을 찍기
 도 하였다.

그들은 서산대사가 살았다는

금강암에도 올랐다.

금강암에서 경치를 부감하
 며 저저마다 《묘향산아!》 하
 고 손나팔을 대고 웨쳤는가 하
 면 오숙경동포는 《아 묘향산
 아, 오 묘향산아》 하며 시짓기
 도 하였다.

이들은 향산호텔에서 노래도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명창들이인 김송미회장과 리봄
 순부회장이 부르는 노래들은 민
 요이든 대중가요이든 다 듣기
 좋아 절찬을 받았고 조수영, 김
 영미, 오숙경, 김명옥동포들은
 춤을 잘 추어 재칭을 받았다.

더우기 양원동포는 마이크를
 들고 실지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흥내를 너무도 잘 내어



수 기

공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김영녀

예로부터 도시와 농촌간에 격차가 있는것은 상례로 되어왔다. 허나 조국에서는 농촌이 도시화되어가고있다.

생각만 해봐도 가슴벅차다. 지방발전정책, 이렇듯 거창한 변혁을 어느 누가 생각할수 있겠는가.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더 정을 주고 마음을 기울이는 어머니처럼 인민생활을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단행하실수 있다.

바로 그래서 그이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에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노래되어 울려퍼지고 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에도 나서시였다.

언제 위험이 들이닥칠지 모를 시험발사장들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계시는 그이를 우려르며 나는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찌할수 없었다.

진정 오늘 조국에서 이룩되고 있는 하나하나의 전변들은 다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천만로고가 안아온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2012년 8월 청년절경축행사과 2016년 8월에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당시) 제9차대회때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당시) 대표단을 이끌고 단장으로 왔던 나는 그이를 두 번이나 몸가까이에서 뵈오면서

한없이 소탈하시고 자애로우신 그이의 인민적품모에 탄복하였다.

그후 조국의 현실을 매일 들으며 그이의 인민관에 더더욱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중국에는 《어떤 사람은...》이라는 시가 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인민의 머리우에 올라서서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웨치지만 어떤 사람은 인민을 위해 마소가 되어 일한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 인민이 높이 머리우로 받든다는 내용이다.

옳은 말이라고 본다. 인민은 거짓을 모르며 인민의 목소리에는 진실이 있다.

조국인민들은 자기 령도자를 아버지로 모시고 받들고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조국을 부러워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난해 중국에서 진행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을 때 많은 중국사람들이 그이를 뵈고싶어했고 인터넷에 그이를 칭송하는 글들을 올렸다. 그 글들을 볼수록 위대한 수령을 모신 조선사람이라는 공지가 온몸에 더욱 차고넘쳤다.

우리 동포들은 비록 해외에 살아도 배심이 든든하다.

조국은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래일도 끝없이 번영할것이다.

인상기

붉은기를 보며

나는 이번 조국방문기간에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돌아보았다. 제일 인상에 남은것은 학교의 강의실마다에 세워진 붉은기였다.

붉은기는 혁명의 상징이다. 항일투사들은 붉은기를 높이 들고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기 위해 혈로를 헤쳤다. 선렬들에게 있어서 붉은기는 신념의 표대였고 험로역경에서도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하는 투쟁의 기치였다.

개척세대가 후대들에게 넘겨

준 유산도 붉은기이며 새세대들이 영원히 들고나가야 할 기치도 붉은기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교정에 세워진 붉은기는 열백번의 강의보다 더 큰 감화력과 설득력을 가지고있다.

많은 의미를 담고있는 붉은기이기에 우리는 쉽사리 교정을 떠날수 없었다.

붉은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그 어디에 있는 마음속에 붉은기를 간직하고 살며 일해야 한다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 리순남

《우리는 조선사람》,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사무장 최은성

우리 동포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 조선사람된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에 더욱 벅차오른다.

조선사람!
이 말은 해외공민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귀중한 부름이다.

어릴 때 어머니는 나의 손목을 잡고 조국방문길에 올랐었다.

그때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조선사람이다. 어디가도 조선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나의 성장의 걸음걸음마다에 울리었다. 조국의 력사와 문화를 배울 때에도 조선사람이라는 그 부름이 나의 뇌리에서 떠날줄 몰랐다.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는 우리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조선사람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 비판하거나 물리설줄도 굴할 줄도 모른다.

바로 그래서 조국인민들은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비록 해외에 살지만 조선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살아가겠다.

아버지의 줄짱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겨 마음껏 공부하고 싶은 소원을 성취한 최행웅은 대학을 졸업하고 삼촌의 애국지성이 깃든 회사일을 맡아 하면서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하여 최행웅은 1996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받았다.

최웅수부원이 무역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큰 작용을 하였다.

그가 평양제1중학교 졸업반시기 앞으로의 전공에 대하여 고심할 때 자연과학을 하도록 적극 떠민것도 아버지였다.

한것은 자연과학을 해야 모든 문제의 원리를 제때에 파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란하게 처리할수 있다는것을 아버지 자신이 무역을 하면서 느꼈기때문이었다.

최웅수부원은 아버지가 해주던 줄짱이야기 가 제일 잊혀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하였다. 《줄짱에서 처음부터 물이 나오는것은 아니다. 한바가지의 물을 부어넣어야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땅속깊이에 있는 물을 쪽쪽 끌어올린다. 나는 우리 가정이 나라의 재부를 마련하는 한바가지의 물이 되었으면 한다.》

그후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별로 집가산을 마련하지는 못해도 언제나 인민들속에서 호평받는 《릉라》빵을 비롯한 식료품들을 질적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은 최웅수부원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력이 있어 《릉라》빵들이 전국적인 제품심사등록에서 높이 평가되어 인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그 인기영역도 더 넓어만졌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국가적으로 진행된 대회들에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오랜 기간 해외에서 사업하면서 무역활동을 해온 룡라합영회사 부원 최웅수는 대방들로부터 실력가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실지 그는 어느 분야나 막힘이 없는 실력가이다.

뿐만아니라 집단을 위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그에 대한 말이 자주 화제에 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콩 심은데 콩이 나오고 팥 심은데 팥이 나온다.》라고 말하고있다.

알고보니 그는 룡라합영회사 초대사장이었던 최행웅의 아들이었다.

룡라합영회사는 일본에서 살던 최행웅의 삼촌이 조국을 위해 설립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도 수여받았다.

최웅수부원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룡라합영회사에서 일하였다.

그는 네일내일, 쉬운 일, 힘든 일을 가리지 않고 사업하였다.

오랜 기간 회사에서 함께 일해오고있는 룡라표향건재공장 지배인 홍정국은 《한번은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쉬운 업무처리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어려운 일감만 찾아하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버지의 후광속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앞에 몇몇한 아들이 되고싶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라고 최웅수부원의 인간됨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들을 찾으며 나라를 위한 좋은 일도 수많이 하였다.

그 걸음은 언제 한번 드리거나 멈춰선적이 없었다.

한번은 강원도의 어느한 발전소를 찾아갈 때였다. 령길에 눈이 너무도 쌓여 차가 도저히 전진할수가 없었지만 그는 안해와 함께 눈길을 헤치면서 끝끝내 목적지까지 도착할수 있었다.

자기의 생일날에도, 아들의 생일날에도 그는 지원물자를 안고 사회주의건설장들을 찾고찾았다.

그 나날 그는 아버지가 한 말의 참뜻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해외에 나가 무역활동을 하면서도 그는 줄짱의 한바가지 물이야기를 언제나 잊지 않았다.



어머니의 의견을 듣고있다.



기술자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는다.

그의 사업수첩에는 이런 글이 썩여져있다.

《나라를 위한 일에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버지의 영웅메달앞에 몇몇하게 살자!》

그는 오늘도 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않고 묵묵히 한길을 걷고있다.

아버지의 줄짱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글 김슬기, 사진 김강무

지명유래

혜산시

혜산시는 량강도의 소재지이다.

1934년에 함경남도 갑산군의 일부 지역이 혜산군으로 되었다.

혜산이란 《산의 혜택으로 살아간다》는 뜻을 한자로 옮긴것이다.

이곳의 높고낮은 산들에는 목재자원이 많고 사과, 산나물, 약초 등이 많으므로 사

람들은 부대기를 일구고 산림자원을 채취하며 살았다.

해방후 이곳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1954년에 량강도가 새로 나오면서 혜산시가 되었다.

* * *

늘어나는 새 거리, 그 거리의 주인들

얼마전 우리는 네번째로 일
떠선 화성지구의 새 살림집들
에 보금자리를 편 인민들의 모
습을 지면에 담고싶어 이곳을
찾았다.
림흥거리가 끝나는 시점인 승

리다리에 들어서서 바라보니 화
성지구 4단계 살림집들은 다양
한 고층, 다층살림집들로 조화
를 이루며 새별거리와도 어울려
있어서인지 더욱더 특색있고 웅
장하고 아름답게 안겨왔다.

시원하게 뻗은 도로와 주민들
의 리용에 편리하게 살림집구
획안에 꾸려져있는 급양, 상업,
편의봉사시설들...
특징적인것은 살림집구획의
중심부에 뽕죽식지붕으로 고



전미가 나게 향상한 상징건물 2동을 앗히고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독특한 립체지붕을 가진 살림집건물들을 사선식으로 배치한것이었다.

오래동안 농촌지구나 다름없던 이곳에 1년사이에 웅장화려한 건축군이 일떠섰다는것이 정말 놀라웠다.

우리는 이처럼 멋있는 살림집들의 주인들을 만나보고싶은 충동을 안고 송암동 1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남정애로인의 집에 들리었다.

새집을 구경하러 왔다는 우리의 말에 로인은 반가와하며 방으로 안내하였다. 부엌과 세면장, 3칸의 방 등 넓다란 살림집에서 세 식구가 살고있었다.

로인은 이전에 살던 집도 그 만하면 괜찮았는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좋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정해주었다고, 입사한지

여러달이 지났지만 꼭 꿈을 꾸는것만 같다고 하였다.

로인만이 아니었다. 새집에서 복락을 누려가는 기쁨과 행복이 담긴 주민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았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배정한 새집을 받아안고 이처럼 희한한 거리에서 문명을 향유하는 자기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문화생활거점들과 봉사기지들도 돌아보았다. 다양한 봉사기지들이 살림집구역에 조화롭게 배치되어있었다.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사람들로 흥성이는 송암종합상점이었다.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되어있는데 1층에는 기초식품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들이, 2층에는 이불장, 경대, 침대, TV탁 등 질높은 다양한 가구들과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이 구획별로 나뉘어 진렬되어있었

다. 현대적인 살림집에 어울리는 이불장과 침대 등 새 가구를 놓고싶어 찾아왔다는 중년부부이며 어떤 색깔과 형태의 창가림을 고를가 머리를 기웃거리느 짧은 녀인의 모습...

새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편 주민들을 멋있게 내세우고싶다



며 성의를 다하고있는 송암양복점과 목욕, 리발, 미용, 청량음료, 탁구 등을 봉사받을수 있게 꾸려진 화성원의 봉사자들의 열의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화성구역 송암1고급중학교와 화성구역 송암1유치원에도 들러보았다. 학생들과 어린이들은 새 교사, 새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남다른 기쁨을 자기들이 창작한 동요와 동시,

노래와 춤에 담고있었다.

어느덧 밤은 깊어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들과 거리는 황홀한 불빛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밤거리를 따라 걸음을 옮기느라니 사회주의제도의 시책과 고마움에 대해 감격해하던 주민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그러면서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것은 선진문명을 체현

한 건축군의 용자도 그리하지만 그속에 다름아닌 우리 당이 하늘처럼 여기며 떠받드는 인민의 행복과 밝은 모습이 비껴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뇌리에 갈마들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속에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글 전룡진
사진 리영철





대규모온실남새생산기지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우리 나라의 서북변에 위치한 위화도지구에는 대규모온실 남새생산기지인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이 자리잡고있다.

1 150여동의 각이한 류형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시험재 배온실들, 다층문화주택들, 다양한 문화생활기지들과 특색있는 원림경관이 조화를 이룬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우리 나라

에서 네번째로 건설된 대규모온실농장이다.

농장은 최근년간에 조선동해지구의 중평과 련포, 평양의 강동지구에 건설된 온실들을





신의주온실종합농장



다 합한것보다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있다.

농장지구에는 남새과학연구뿐 아니라 온실남새재배와 관련한 전국적인 기술봉사도 진행하는 학술지도단위, 과학연구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의주남새과학연구중심도 있다.

농장지구에 건설된 수경 및 토양온실들의 형식과 내용은 각이하다.

그중에서도 특색있게 건설된 3개의 반구형유리수경온실들에는 각각 수직회전식다층남새재배장치, 수직흐름식다층남새재

배장치, 수평판식다층남새재배장치가 설치되어있다.

양어와 남새재배를 겸한 태양열온실의 수조에서는 철갑상어와 잉어를 비롯한 물고기들

이 옥실대고 띄움식재배틀에서는 부루와 영양배추가 푸르싱싱 자라고있다.

농장에서는 경영관리와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신의주남새과학연구중심

하는 지능형 통합생산체제와 가치있는 재자원화기술들을 도입하여 생산원가와 소비를 극력 낮추고 큰 실리를 얻고있다.

또한 남새재배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고 남새과학연구사업을 생산과 밀접히 결합시키며 그 과정에 이룩한 선진기술과 경험을 나라의 모든 온실농장들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5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을 찾으시어 온실남새바다, 유채꽃바다가 펼쳐진 섬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위화도지구의 변천과정이 떠오른다고, 이 전변상이야말로 새시대 천지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직관해주는 사회주의조선의 긍지높은 축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농장에서는 수십종에 달하는 갖가지 남새들을 매일 수백t씩 수확하여 도안의 상업

봉사단위들에 정상적으로 보내 주어 지역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자신들이 책임졌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날마다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있다.

글 윤혁

사진 리철, 변찬우, 한형주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제시된 새 전망목표달성을 위한 주체철증산으로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가 들끓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식의 에너지 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와 1만 5 000m³/h 산소분리기들을 갖춘 련합기업소에서는 주체철생산체계와 그 운영방법을 기술적으로 보다 개선완비하고 생산능력을 계속 확장해나가고있다.

기업소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기술자들은 로봇수주기를 연장할수 있는 새로운 내화물을 현실에 도입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생산량을 배로 장성시킬수 있게 하였다.



주체철생산성과 확대

-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



뿐만아니라 새로운 분말취입 공정을 확립하여 쇠물속의 류황 함량을 낮추면서 정련효과를 제고하는 등 질높은 철강재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용광로1직장에서는 용해공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당라되어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개발한 착상들을 실천에 도입하여 쇠물생산실적을 올리고있다.

산소분리기분공장에서는 설비



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는 한편 설비들의 점검보수도 깐깐히 하고있다.

분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지혜를 합쳐 고압기름분사에 의한 대형공기압축기시동방법을 내놓았다.

기술과 부원 신원국의 말에 의하면 지난 시기 한번 시동하려면 보통 많은 시간이 들어야 했던 대형공기압축기가 이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인 후부터 가동시간을 훨씬 줄일수 있게 되



여 산소증산에 적극 이바지한다고 한다.

가스발생로직장에서는 연료의 질적지표에 따르는 합리적인 로조작방법들을 받아들이면

서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내화물의 질제고와 동력계통의 안정성보장 등 생산능력을 부단

히 높이면서 철강재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글 채향욱
사진 전선일





어린이지능개발에 도움을

- 대진무역회사 문흥정보기술개발소 -



바른 품성을 키워주는 등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교양에서 많은것을 해결할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동화그림들과 생동한 말소리가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당겨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한다고 특히 지난 시기 손전화기나 TV에만 의존하던 외국어학습을 카드를 통하여 하니 시력에도 부정적영향이 적어 좋다는것이 부모들의 평이기도 하다.

적외선빛수감기술을 리용하여 만들어진 이 놀이감은 대진무역회사 문흥정보기술개발소의 연구집단이 개발하였다.

이미 이곳 함일남실장과 연구사들은 어린이지능도서열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음성도서개척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은 새로운 연구과제를 탐구하였다.

유치원들과 가정들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지능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과정에 이들은 외국어교육에 도움을 주는 놀이감개발을 목표로 내세우게 되었다.

세계적인 교육용놀이감추세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이들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면서도 유희를 하듯 재미나게 외국어공부를 할수 있는 소리그림카드를 착상하였다.

마침내 이들은 사색과 노력을 기울여 동심에 맞는 500개의 다양한 그림들을 선정하고 4개 나라의 언어로 된 음성과 풍부한 교육내용들을 수집한것을 비롯하여 자료지구축사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었으며 제품으로 완성하였다.

놀이감은 나오자마자 교육자들과 어머니들의 특별한 관심을 모았으며 여러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실장 함일남은 연구사업의 성과는 누가 더 기발한 착상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부단한 착상으로 어린이들의 지능개발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내놓기 위해 오늘도 이들은 사색을 거듭해나가고있다.

글 김성경
사진 리영철



최근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나 유치원교양원들속에서 관심을 끌고있는 놀이감이 있다.

《매진》상표를 단 외국어학습용놀이감이다.

일명 《소리그림카드》라고 부르는 이 놀이감은 250개의 카드로 이루어져있는데 매 카드에는 동물, 사람, 식물 등 동심에 맞는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있다. 읽기장치를 통하

여 매 그림카드들에 적재되어 있는 단어와 문장, 노래와 이야기, 알아맞추기를 4개 나라의 언어(조선어, 로어, 중어, 영어)로 청취할수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의 지능개발과 외국어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중구역 외성유치원 교양원 김은영은 이 놀이감으로 외국어교육뿐 아니라 우리말 공부와 셈 세기 그리고 풍부한 정서와 옹



상식

인사례절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길에서 서로 만나면 절을 하고 길을 양보하는것을 레의로 여겼다.

아래사람들은 옷사람에게 길을 비켜주거나 잠깐 그 자리에 머물러서서 먼저 지나가도록 하였다.

절에는 옷몸을 깊숙이 굽히는 형식과 절반정도로 굽히는 형식, 고개만 숙이는 형식이 있다.

옷몸의 굽힘정도에 따라 옷사람과 아래사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인사례절은 환경과 장소, 대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뉘어져있다.

같은 인사인 경우에도 늙은이와 젊은이, 어린이에 따르는 말차림이 뚜렷이 구분되어 존경과

친근감, 사랑스러움을 잘 살릴수 있다.

인사례절은 매우 풍부하다. 헤어질 때의 인사말을 보아도 《안녕히 가십시오.》, 《다시 만납시다.》, 《조심히 다녀가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등으로 자기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할수 있다.

* * *



하나의 일념을 안고

- 평양내시경기술교류사 평양내시경공장에서 -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면서도 환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게 하겠는가?》

몇번이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며 내시경연구에 혼신을 쏟아붓는 연구사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평양내시경기술교류사 평양내시경공장 연구사들이다.

수십년전부터 내시경연구, 생산을 전문으로 해온 공장에서는 지난 기간 많은 의료용내시경들을 제작하여 보건부문에 보내주었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와 더불어 공장에서는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실천에

구현해나가고있다.

내시경은 광학, 전자공학, 생체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의 집합체인것으로 하여 하나를 개발하는데 품이 많이 들었다.

연구사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발전추세에 맞는 전자화상위내시경을 개발하는데 달라붙었다.

이들은 수많은 학문을 파고들며 내시경을 국내의 원료와 자재로 만드는데 연구사업의 초점을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 김홍경사장과 도진성지배인, 김룡일연구사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내시경의 광원장치를 개발하는데 성공하

였다.

그들은 점막과 혈관의 상태를 더 잘 볼수 있게 하는 BLI(청색빛화상)기술을 개발도입하였다.

하여 일반내시경의 선단부에 청자색빛LED를 직접 장착한 새로운 BLI기술을 첨가하여 주위로부터 병조와 종양조직을 식별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성능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선단부에 장착된 레드조명의 랭광원화 등도 실현하였다.

연구사들은 여러해동안 내시경의 안전성과 과학성을 증명

하였다.

집단의 힘과 지혜, 기술로 만들어진 전자화상위내시경은 국내 여러 보건기관들에 도입되었다.

남포시 룡강군병원 의사 김일영은 《평양내시경공장에서 만든 우리의 전자화상위내시경을 사용해보았는데 화상의 질이 정말 좋습니다. 내시경삽입시 만족조종도 원활합니다.》라고 호평하였다.

전자화상위내시경은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1등으로 평가되었다.

평양내시경기술교류사 사장 김홍경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그들의 생명안전을 담보한다는 하나의 일념을 안고 우리는 앞으로 더 좋은 의료용내시경들을 개발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글 김세현
사진 김평



상식

어떤 알류가 건강에 제일 유익한가

학자들이 어떤 알류가 건강에 제일 유익한가를 밝혀냈다.

판명된데 의하면 닭알에 비타민D가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또한 뇌와 혈관의 건강 및 발달에 필수적인 린지질과 아미노산이 균형적으로 그리고 일식으로 함유되어있다. 더우기 노란자위속의 콜레스테롤이 유익한것으로 밝혀졌다.

이 물질은 해로운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며 호르몬 합성을 위해 필요하다.

메추리알은 비타민B12, B2 그리고 철분을 2~3배나 많이 함유하고있다.

오리나 계사니의 알에는 지방이 많으며 칼슘과 린이 풍부하다. 계사니알은 시력보존에 도움을 주는 독특한 항산화물질인 루테인을 함유하고있다.

그러나 계사니와 오리는 살모넬라균에 잘 감염된다. 때문에 음식을 생것으로 준비할 때 계사니나 오리의 알대신 닭알을 써야 한다고 권고되고있다.

타조알은 열량이 낮은 반면에 셀렌과 비타민A, E를 많이 함유하고있다.

타조알 1알은 닭알 40알과 맞먹으며 더우기는 랭동기에 1년까지 보관해둘수 있다.

* * *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탁구소조

-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에서 -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는 상급학교입학률이 높은 학교, 탁구를 잘하는 학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있다.

학교는 최근년간에만도 제21차, 제24차, 제25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체육축전) 고급중학교부문 여자탁구(단체전)경기에서 각각 1등을 하였다. 그리고 2025년 전국학생소년체육경기대회 고급중학교부문 여자탁구(단체전)경기에서도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세거리고급중학교 탁구소조의 몇년째 계속되는 금메달쟁취를 두고 놀랍다고 이야기하고있다.

이러한 성과에는 체육교원 전

수정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그가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의 체육교원으로 배치된 것은 10여년전이었다.

당시 학교에는 적지 않은 파외소조들이 운영되고있었지만 탁구소조운영만은 활기를 띠지 못하였다.

구역적으로 학과실력이 높은 학교인것으로 하여 학생들은 자연과목소조들에만 열성을 내면서 탁구소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는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인재들로 키우기 위하여 학교일군들과의 연계밑에 소조원들을 선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그들의 나이와 심리, 체질에 맞는 훈련방법을 모색하고 기초기술동작들을 배워주기 시작하였다.

그의 노력에 의해 소조원들은

상회전, 측회전 등에 대한 걸어치기, 바로치기, 밀어치기와 같은 각이한 치기동작들을 정확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으며 재치있는 쳐넣기, 정확한 첫공받기와 다음공처리, 송구점변화 등 다양한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게 되었다.

특히 리춘양학생은 좌우결합에 의한 련결동작 등 특기기술로 2025년 전국학생소년체육경기대회 고급중학교부문 여자탁구(단체전)경기에 참가하여 소조가 1등을 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으며 개인단식경기에서도 우승하였다. 2개의 금메달을 쟁취한 그는 최우수선수상도 받았다.

전수정교원은 학생들의 학과학습에도 관심을 돌리었다. 그는 소조원들의 훈련이 끝나면 그들의 학습을 적극 방조해주기도 하였고 다른 학과목소조에 보내여 공부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탁구소조원들은 탁구는 물론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학교의 탁구소조를 다닌 졸업생들중에는 체육단들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있고 상급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많다.

글 엄향심
사진 리영철

관심을 두어가는 지능형건물조종체계

건물안의 보안과 환경조절 등 선진적인 자동조종체계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지능건축.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백두산건축연구원 녹색건축정보기술교류소에서는 사람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오래전에 지능형건물조종체계개발을 시작하였다.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속에 신현희소장을 비롯한 교류소의 설계가, 기사들은 체오기술합작회사의 연구집단과 협력하여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건물조종체계 《신록》1.0을 개발하였다.

수차에 걸치는 장치련동시험을 진행하고 여러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체계는 완성되었다.

지능형건물조종체계는 건물의 방들에 온도, 습도, 밝기 등의 수감부들과 전기제품을 조종할수 있는 말단장치들을 설치하여 방안의 환경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외부의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손전화기로 전력상태, 전기제품들의 가동상태, 온습도 등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조종관리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살림집의 보안을 종합적으로 담보해주는 지능형보안체계, 살림집안의 환경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조종할수 있는 지능형환경조종체계, 살림집의 전력관리를 자동적으로 할수 있는 지능형전력감시조종체계이다.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건물조종체계 《신록》1.0은 지적소유권사업발전전람회-2024에서 1등을, 전국정보화성파전람회-2025에서 10대최우수정보기술제품으로 선정되었다.

전람회장을 찾았던 김책공업종합대학 실장 백진호는 《지능형건물조종체계는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며 필요없이 랑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는데서 현실적의의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라고 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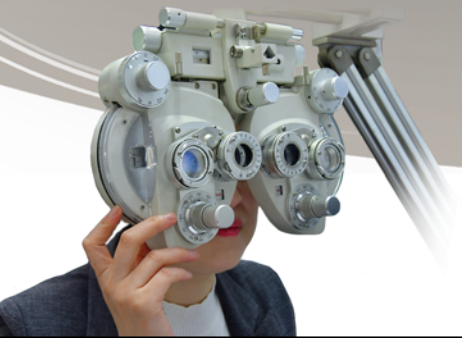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손전화기를 통하여 건물의 모든 환경을 감시하고 조종 및 관리할수 있는 지능형건물조종체계는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글 김슬기, 사진 김강무



선진기술로 품질을 담보하여

- 평양광학합작회사에서 -



평양광학합작회사는 안경제작 및 봉사기능을 갖추고있는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인 안경봉사단위이다.

2014년에 접촉렌즈제작으로부터 발족한 회사는 오늘날 현대적인 안경알생산 및 검사설비, 안경테생산공정들을 꾸려놓고 시력개선과 보호에 좋은 여러 종류의 안경렌즈와 질이 높은 안경테들을 종합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안경전문기업으로 발전하였다.

회사에서는 시력을 보호하고 기호품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게 안경제작에 힘을 넣었다.

이곳 제작집단은 세계적인 안



경추세와 광학, 재료학, 안과학 등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각종 안경렌즈들과 안경테들을 정밀가공할수 있는 선진적인 안경생산토대를 갖추어나갔다.

선진기술인 쌍축, 루변다초점안경렌즈제작기술을 받아들여 회사는 품질이 우수한 단초점안경알, 다초점안경알, 루변초점안경알 등 기능성안경알들을 생산하고있다. 안경알들은 반사방지, 정전기방지, 흠집방지, 자외선방지, 램광방지, 안개방지기능 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회사의 제작집단은 시력이 매우 특이한 사람들의 안경렌즈도 주문생산하며 자동변색기능을 갖춘 기능성안경렌즈도 제작하여 봉사하고있다.



이곳 생산기지들에서 제작되고있는 금속, 수지, 천연재료로 된 각종 안경테들은 유연하고 감각이 좋으며 형태가 다양한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지난해에 있는 제17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 전람회들에서 평양광학합작회사에서 내놓은 새로운 형태의 각종 남, 녀안경테들과 여러 종류의 안경렌즈, 색안경, 접촉렌즈를 비롯한 많은 안경관련제품들이 품질이 우수한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적인 안경렌즈품질시험기관인 회사는 평양시와 각 지방들에 분점들을 두고 안경봉사활동을 적극 진행해나가고있다.

지난 기간 수십만명의 손님들에게 안경봉사를 진행한 회사의

제작집단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찾아 종업원들의 시력을 검사해주고 안경도 봉사해주어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글 강소현
사진 김영호





보양음식봉사로 인기를

- 비들눈식료가공생산소에서 -

전통음식을 잘 만들어 봉사하는 단위들중에는 비들눈식료가공생산소도 있다.

이곳에서는 전통음식의 고유한 맛과 제법을 살리면서 현대의학과 결부시켜 여러가지 약효능을 나타내는 보양음식들을 만들어 봉사하고있다.

불로초토끼곰, 단너삼토끼곰, 인삼닭곰, 검은마늘인삼닭곰, 지황오리곰, 삼계탕, 약밥, 단고기부자엿, 오리보양엿, 토끼보양엿 등 이곳에서 생산되는 보양음식들은 20여가지나 된다.

책임자 김경란은 《지난 시기에는 사람들이 보양음식을 별식으로 만들어먹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에서 보양음식을 자주 찾고있으며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주문하는 수가 늘어나고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봄과 가을철에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보양음식을 너도나도 찾고있다고 하였다.

제품들중에서 손님들이 첫손가락에 꼽는 음식은 불로초토끼곰이다.

옛 문헌자료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요리사 오철민은 면역을 높이고 로화를 막는 천연약재로 인정되고있는 불로초에 초점을 두었다. 그것은 불로초가 토끼고기와 잘 어울리는것은 물론 토끼곰의 영양학적가치를 높일수 있기때문이었다. 그는 연구를 심화시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옛 비방들을 살리면서 불로초와 밤, 대추, 은행, 검은마늘, 팔, 찹쌀 등 음식재료의 배합과 영양학적가치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가공기술을 높여 불로초토끼곰을 내놓았다.

불로초토끼곰은 주로 어린이들과 녀성들에게 특효인데 수술후유증으로 허약해진 몸을 튼튼히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인삼닭곰은 남성들속에서 인기있는 보양음식으로서 원기회복과 로화방지에 특효가 있다.

이곳 제품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제품으로 되고있는것은 그 맛과 향기가 아주 류별난데 있다.

이곳의 비법을 보면 은행잎이나 솔잎을 깔고 재료를 찌내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높은 온도에서 생겨나는 은행잎과 솔

잎의 정유가 재료속에 배이면서 전반적인 약효를 높여주고 맛과 향기도 살려주게 된다고 한다. 특히 인체의 생리적기능을 높여주는 검은마늘을 자체로 제조하여 양념감으로 리용하고있는데 이것은 보양음식의 구미를 한결 돋구어준다.

보양음식들이 감칠맛이 나면서도 보약이 되게 하기 위해 이곳 요리사들은 가공기술을 부단히 제고해나가고있다.

요리사들은 주문자들의 요구에 따라 체질과 성별, 나이, 병명에 맞는 약초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면서 음식을 성의를 다해 만들고있다.

이곳의 단골손님인 평양시 중구역 동안동에서 살고있는 한영희로인은 《<비들눈>상표를 단 단너삼토끼곰은 어떤 비방이 있는지 맛이 좋아 그 여운이 오래간다.》라고 하였다.

이곳 보양음식들은 2025년 평양시하상점 봄철상품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글 강소현
사진 리철



↑ 돼지고기영양찜밥



↑ 오골닭곰



↑ 구기자인삼닭곰



↑ 지황오리곰

→ 인삼닭곰

비들눈식료가공생산소에서는 고려약재를 리용한 전통적인 비방과 현대의학을 결부하여 보양식품, 기능성영양식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책임자 김경란





남매우표 수집가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외국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허부겸, 허 지예 학생들은 우표수집가들이다. 조선우표수집가협회 회원 들인 이들 남매가 우표를 수집 한지는 오래지 않다.

남매중 우표수집의 《선배》 는 녀동생 허지예라고 한다.

10살 나던 해에 지예는 어머니와 함께 어느한 전시관을 돌아본적이 있었다. 그때 지예의 눈길을 끈것은 전시된 우표들이 었다.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각이한 기계들, 력사에 이름난 명인들과 어린이들의 발랄

한 모습... 별의별 그림들이 다 있는 우 표들은 어린 지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때부터 지예는 우표를 수집 하기 시작하였다. 동무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였고 방과후에는 조선우표박물관에 가서 새로 나온 우표들을 선참으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날로 늘어나는 동생의 우표 들을 부러움에 찬 눈길로 보군 하던 부겸이도 우표수집에 달 라붙었다. 동생을 무척 도와주는 부겸이고 오빠를 따르며 존



허부겸



허지예

경하는 지예이지만 우표수집 《경쟁》에서는 서로 양보가 없었다. 호기심과 승벽심으로 시작된 우표수집은 날이 감에 따라 이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었다. 부겸이는 사 변적인 사건들이 반영된 우표들 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고 지예 는 옛 그림들이 있는 우표들을 더 많이 수집하였다. 다양한 주제의 우표들을 수집, 정리, 보존하는 과정에 이들은 우표들이 담고있는 지식의 방대함에 놀라 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많은 의문을 가지군 하였다.

(왜 이 그림을 반영하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이들은 소녀시절 우표수집가였던 어머니와 여러 과목선생님들에게 《성화》를 먹이기도 했고 밤 길도록 책에 파묻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룡악 산의 법운암과 강서세무덤, 덕 흥리벽화무덤 등을 찾아 선조들

의 뛰어난 슬기와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그 나 날 이들은 개개의 우표들에 담겨진 당대의 시대상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많은 상식과 지식도 소유하게 되었다.

몇달전 부겸이는 1947년 4월에 발행된 우표 《땅의 주인》 과 1948년 6월에 발행된 우표 (1957년 복제본) 《로동자와 공장》을 수집하였다.

그때를 떠올리며 부겸이는 《차그마하고 단순한 우표들이었지만 땅과 공장의 주인이 된 농민들과 로동자들의 모습이 비껴있었습니다.》라고 말 하였다.

이들이 차곡차곡 수집한 우표 들은 근 1만매에 달하고 그것을 주제별로, 분야별로 배열한 우 표첩만 해도 수십권이 된다.

한장한장의 우표들을 수집하는 과정은 곧 이들에게 있어서 애국의 마음이 움트고 자라는 과정이었다. 날로 변모되는 조 국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것 만 같은 우표들이 어린 마음들 에도 소중한게만 여겨졌으며 그 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 자부심으로 승화되었다.

취재를 끝내면서 기자에게 지예는 우표는 정말 아름답다고 하였으며 부겸이는 조국에 대해 더 잘 알게 해준다고 하였다.

글 전통진 사진 김호





서예의 어제와 오늘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호에서는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사랑하고 발전시켜온 문화유산의 하나인 서예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예는 인간의 서사활동과정에 창조된 독특한 형식의 예술입니다.

모든 형태의 예술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예의 특성은 하나의 글자, 한개의 단어, 짙막한 문장을 가지고 큰뜻, 심오한 사상을 피력하며 그 뜻과 사상이 글자와 함께 정서적으로 안겨오는데 있습니다. 내용도 글자에 있고 형상도 글자에 있는것이 서예의 독특한 형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오면서 서예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서예는 고대시기 우리 선조들이 신지글자를 만들어 쓰면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중요하게는 글쓰는데 붓을 리용하는 과정에 쓰는 사람의 정서와 뜻, 기호, 취미에 따라 예술화되면서 글씨가 여러가지 서체를 이루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조들은 이웃나라들과 접촉과 교류를 활발히 벌려오는 과정에 한자를 리용하여 우리 말을 적는 리두글자를 내왔는데 이때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한자 서예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자를 가지고 서예를 하면서도 선조들은 자기의 감정과 미감에 맞게 민족적이며 개성적인 필치를 살려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자서예의 유산으로서는 광개토태왕릉비의 비문글체를 들수 있습니다. 비문에는 1 800여자의 글자들이 예서체로 정연하게 씌여져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웅진한 글씨는 창해도 내리누를듯이 장중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오늘까지도 수많은

서예가들과 력사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걸작품으로 인정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탄연(1070년-1159년), 한호(1543년-1605년), 김정희(1786년-1856년)를 비롯한 이름난 서예가들이 수백명을 헤아리며 그들이 쓴 족자와 병풍, 금석문 등이 유물로 남아있습니다.

고려시기 서예가 탄연의 글씨를 가리켜 당시 사람들은 《쇠로 힘줄을 만들고 산허리를 꺾어 뼈를 만든것같다.》고 높이 평했으며 글씨가 유명하여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졌고 조선 봉건왕조시기 서예가 한호는 석봉체라는 고유한 서체를 창조하여 서예발전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습니다. 옛 기록에 의하면 그의 글씨는 《성난 사자가 바위를 뚫기치는듯, 목마른 천리준마가 샘물을 찾아 내달리는듯》 기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봉건왕조시기 서예가인 김정희가 창조한 추사체는 기발한 모양과 맥박치는 박력, 거침없는 속도로 하여 《날카롭고 칼날같으며 속으로부터 풍기는 맛은 햇숨을 만지는듯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민족글자인 《훈민정음》(1444년)이 창제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글서예가 새롭게 개척되어 여러가지 필체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 글자의 독특한 서법이 창조되고 궁체를 비롯한 서체들이 형성되었는데 매개 서체에는 인민의 성격과 기질이 잘 반영된것으로서 우리 글자에 의한 민족서예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난 시기 서예유산들은 당시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이 있지만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됩니다.



20세기초에 들어서면서 종전의 서예와 구별되는 혁명적서예가 발생하였으며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구호문헌의 글씨들은 혁명적서예의 본보기로서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기념비적창조물들의 현판, 기념비문 등에 친필을 주시으로써 많은 서예의 본보기가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 서예는 시대의 사상감정과 인민대중의 구체적인 생활을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고있습니다.

명문장을 가지고 붓글씨를 쓰는것이 생활화되는 과정에 우리 나라에서는 청봉체, 평양체, 물결체 등 미적정서가 흐르는 서체들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국가미술전람회, 전국서예축전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전시회들이 자주 진행되는 속에 서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서예의 품격을 새롭게 살리는 다양한 서법들도 창조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진행된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2025에서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남, 녀어린이들이 쓴 《아름다운 평양》, 《우리 나라》, 《우리의 국기》 등의 서예작품들은 부드럽우면서도 룰동감이 나는 생동한 필치로 하여 참관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유치원원장 강순희는 《뜻과 획의 예술인 서예는 사람의 성장과 성격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뜻이 깊은 명문장을 종이우에 붓으로 정히 쓰면서 그 뜻을 마음속에 새기는 과정은 곧 사상정신적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재능있는 꼬마서예가들을 많이 배출한 유치원은 오늘도 서예교육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서예는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 친근하게 자리잡고있습니다.

동포여러분, 끝없는 열정과 랑만, 깊은 사색과 정서적체험을 안겨주는 우리의 문화유산인 서예를 누구나 장려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은 보다 더 아름다워질것입니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실장 조일경



조선장기수풀이 (42)

장기격언

걸린 쪽은 뺏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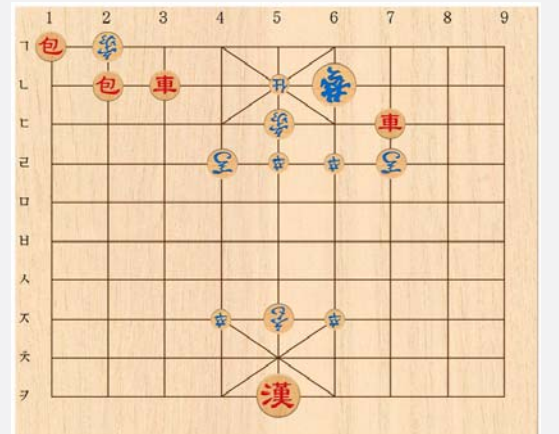
이 말은 상대방에게 걸려든 《쪽》은 빠져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방에게 걸려들어 위협을 받고있는 《쪽》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령량도 보존하고 자기의 전술적의도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그러지 않고 걸려든 《쪽》을 외면하고 이기겠다는 욕망에서 다른 수를 쓰게 되면 그때는 다른 《쪽》이 또 걸려들게 되므로 자연히 전술적으로 몰려돌아가는것이 상례로 되고있다. 이런데로부터 걸린 《쪽》은 뺏수록 뺏아야 한다는것이 장기실전에서 원칙적인 문제로 되고있다.

장기수풀이 (41)에 대한 답

ㄹ4차ㄴ4, ㄷ2말ㄴ4, ㄴ2차ㄴ4, ㄹ3말ㄴ4, ㅅ3말ㄹ4, ㄷ1차ㄴ4, ㅋ3포ㄴ3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등산놀이

(전호에 계속)

일행은 그냥 내쳐 걸어서 관음사에서 려장을 풀었다. 천마산을 넘어온 피곤을 무릅쓰고 모두가 관음사 대웅전이며 관음굴이며 그앞에 서있는 7층돌탑을 구경하였다.

관음사는 970년(고려 광종21년)에 법인국사라는 중이 천연바위굴안에 관음보살상 한쌍을 앉혀놓고 그 굴을 관음굴이라고 부른 때로부터 절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후에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을 세우고 절의 이름을 관음사라고 불렀다고 한다.

관음사에서 하루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해가 끝안에 퍼지자 일행은 북성귀로정의 마지막지점인 박연폭포를 향하여 떠났다.

개울을 따라 성북문에 이르자 성문옆에 있는 큰 바위밑에 바가지처럼 생긴 못이 보이는데 그것이 박연이였다.

이 못에 고였던 물이 벼랑아래쪽으로 쏟아져내려서 박연폭포를 이루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아득히 높은 벼랑에서 곧추 날아떨어지는 폭포를 아래서 올려다보기도 하고 벼랑우에서 내려다보기도 하였으며 범사정정각에 올라 옆에서 보기도 하였다.

보는 곳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하였다.

장쾌한가 하면 시원스럽기도 하고 장엄한가 하면 웅맹스럽기도 하였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쿵쿵 쏟아져내리는 물소리는 우뢰소리같기도 하고 노한 울부짖음같기도 하며 천군만마가 내달리는 말발굽소리같기도 하였다.

개성이 낡은 유명한 녀류시인 황진이가 젖은 머리태를 휘둘러썼다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우에 오르니 그 옛날 이 못가에서 그윽히 울려 퍼지여 조선서해통왕의 딸을 반하게 했다는 전설속의 박진사의 피리소리가 들려오는듯도 하였다.

최서방내외와 장쇠는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깊은 감동속에 하루를 보냈다.

무시울사람들은 저물녘이 되어서야 귀로에 올랐다.

대흥산성 북문을 빠져나와 골계수를 거슬러 대흥사를 향해 등산길을 걸으면서 살펴보니 산굽이마다 절경이고 물굽이마다 명소였다.

일행은 대흥사에 이르러 돌층계아래에서 개울가로 마당처럼 넓게 펼쳐진 너럭바위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워 춤을 추다가 다음날 아침에야 남문을 거쳐 성을 빠져나왔다.

남문에서 발아래로 멀리 펼쳐진 산과 들을 바라보니 참으로 장쾌하였다.

마치나 구름우에서 이 땅을 굽어보는듯도 한데 기묘한 바위들과 단풍으로 단장한 크고작은 봉우리들, 그 사이사이로 굽이굽이 흘러가는 맑은 개울,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 등 한쪽의 산수화를 마주하고선듯하였다.

여기서 무시울사람들은 마중나온 자식들과 친척, 이웃들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자식, 친척들과 이웃들이 먼 등산길을 다녀오는 늙은이들과 부모들의 건강안부를 넘려하여 간단한 음식을 차려들고 손자, 손녀들까지 데리고 남문까지 와서 마중하는것을 《들이마중》이라 하고 화담계곡에 있는 서사정(중세철학자 서경덕이 학문을 닦던 정각)까지 와서 마중하는것을 《내마중》이라고 한다.

로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가 험한 등산길에

서 무사했음을 축하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출판을 벌리고나서 서로 부축하고 이끌면서 개성장안으로 유유히 돌아온다.

최서방내외와 장쇠는 보패를 반갑게 만나고 동네사람들과 함께 무시울로 돌아왔다.

등산놀이 며칠동안 마을과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고보니 마을이며 집이 별로 정다와보이였다.

최서방은 퇴마루에 걸터앉아 먼지오른 짚신과 행전을 벗어버리면서 누구에게라없이 말하였다.

《며칠간 등산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였으니 래일부리는 힘을 부쩍 내어 한바탕 일해제껴보자!》

옆에 앉아 무릎을 다독거리고있던 리씨가 지청구절반으로 대꾸하였다.

《어이구, 죽을 때까지 뼈빠지게 할 그 일이 그렇게두 좋으시우? 그저 눈만 뜨면 일... 일...》

《허허... 북성귀 갔다왔는데두 마누라생각은 그저 그대루라니까. 나는 풀무소리, 메질소리를 못들으면 잠이 오지 않고 몸이 편안치를 앓어. 래년 봄같이애 쓸 보습이며 팽이나 호미를 지금부터 버려내야 우리 마을은 물론 이웃마을들에서도 농사를 지을게 아니요. 농사를 지어야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아야 나라도 있고 나라를 지켜 영웅장수도 날게 아닌가.》

《어이구, 평생 버림질밖에 모르던 령감님이 북성돌귀 한번 하고 오더니 유식해졌수다그려.》

《아무렴, 부뚜막 지키는 마누라보다야 낫겠지.》

《그런 말마시우. 나두 북성귀 다녀오고나니 아나네라구 제집 부뚜막 지킬줄만 알아서는 안되구 제 고향산천이 귀하구 이웃간에 오가는 정과 마음이 더 귀하다는걸 알았수다.》

《옳거니. 그 소리 한마디는 참 잘했어. 헌데 그 귀한것을 누가 가꾸고 지켜주는가 말이야. 우리 백성들이 지켜야 해. 빈말로가 아니라 바로 이 주먹으로 지키고 힘으로 지키고 일로 지켜야 해. 그러니 나야 눈만 뜨면 일, 일 할수밖에. 장쇠야, 그렇지 않냐?》

《옳아요. 아버지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일을 모르면 사람값에 못가지요. 사람답게 살려구 모두 평생을 바쳐 일하는것이구요.》

최서방이 머리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우리 장쇠가 몸이 약해보여 늘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보니 사내다운 배짱은 있더라니까. 며칠간 산길을 걸으면서 몸단련도 하구 사람의 도리도 알게 되었을게다.》

《예, 북성귀가 처음이지만 몸단련도 하구 많은걸 배웠어요. 제 고향산천이 귀하다는것두 알게 되구 그걸 지켜 한몸바쳐야 한다는것두 깨달았어요.》

부자간에 하는 말을 듣고있던 리씨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이구, 이 무슨 변이냐. 북성귀 한번에 서당문앞에도 못가본 이 집 남정네들이 다 유식해졌구나!》

리씨가 손뼉을 짹짹 치며 웃는데 부엌에 있던 보패가 큰소리로 말했다.

《왜 남정네들뿐이예요. 나두 같은 생각인데요.》

《오냐, 맞았다. 너도 봄에 남성귀 갔다왔으니 그렇구말구. 북성귀, 남성귀라는게 산길을 걸어 갔다오는 그저 놀이가 아닌줄 이제야 알겠다.》

집안팎이 웃음판이다.

최서방은 시원하게 세면을 하고나서 얼굴을 슬슬 닦으면서 기분좋게 말하였다.

《장쇠야, 오늘밤은 푹 자고 래일 첫새벽에 우리 집 메질소리로 온 마을을 깨우자구나. 알겠냐?》

《알겠어요. 쟁강쟁강, 땡강땡강 그 소리가 종소리보다 더 좋지요.》

이때 동산에서 솟은 스무날달이 환히 웃으며 최서방네 마당을 기웃이 들여다보고있었다.

하늘도 땅도 사람들도 모두 웃는 날이였다.

(끝)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